

지역 기업들 지구온난화 방지 '탈석탄·그린뉴딜' 동참

사회적 책임 강화 ESG 경영 도입
광주은행 화력발전소 자금조달 불참
한전 녹색 프리미엄제도 첫 시행
한전KDN 전 직원 탄소저감 캠페인
농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상태로 만들자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계도 사업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임직원

들은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연말 광주시와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맺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전략에 동참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않으며, 관련 채권 또한 인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K-그린카드' 상품을 출시해 에너지 절감 활동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에코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녹색 프리미엄'에는 LG화학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한화솔루션 규슈부문(한화규셀)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해 재생

에너지를 낙찰 받았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녹색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인증에 활용하는 제도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화학이 낙찰받은 120GWh는 2만8000여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이다. 이번 낙찰로 의료용 장비의 주요원인 NBR 라텍스 등을 생산하는 여수 특수수지 공장 등이 RE100 전환을 달성하게 된다. 한전은 이달 19일 지난해 영업실적을 발표하며 올해도 친환경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본드' 발

행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6월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를 2년 연속 발행하기도 했다. 같은 날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KDN은 사내 포털과 전자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탄소저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자메일을 쓸아두거나 불필요한 메일을 저장하면서 생기는 전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전 직원 2989명이 동참하고 있다. 주기적 메일 삭제, 첨부 파일 분리저장, 지문인증 비우기 등이 주된 내용

이며 지난 달부터 오는 3월 초까지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전KDN 측은 전자메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한 달여 동안 전기 사용량을 전월보다 20% 가량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내포털 시스템과 이메일 시스템 상단에 이 같은 활동을 홍보하며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는 농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다음 달까지 참여한다. 제주항공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SNS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번째)와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봉사단 30여 명이 25일 함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나주 에너지공기업들 '중기 에너지 기술마켓' 참여

한국전력거래소도 동참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는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에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참한다. 주관기관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참여기관에 전력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3곳이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참여기관인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 6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에 3개 기관이 더해져 총 17개로 늘어났다. 에너지 기술마켓(energytechmarket.or.kr)

은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제품 조기상품화를 지원한다. 참여기관들은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제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등을 지원한다. 혁신성과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의로 구매할 수 있다. 혁신제품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한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포상을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전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홍보, 공공기관의 구매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보 호남본부, 올 상반기 5600억 신규 보증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올해 상반기(1~6월) 5600억원 규모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추경예산을 확보했던 지난해 상반기(5820억원)에 비해서는 10% 가량 감소한 규모라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신보 호남영업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지역 중소기업에 유동화 회사보증 400억원을 포함시켰다. 호남본부는 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점 정책부문에 뉴딜기업 지원 관련 '신성장동력분야'를 신설해 4609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는 6750억원, 수출기업에는 2845억원을 보증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화학·조선업 등 7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1602억 원이다. 여기에는 신규 보증과 함께 기존 보증이용 업체에 대한 연장 공급액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 해소

를 위해 8451억원 상당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부실방지 및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약속한 기일에 외상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를 신보가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오재택 신보 호남본부장은 "정책금융 선도 기관으로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신보는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99.69	(+104.71)	
↑ 코스닥	936.21	(+29.90)	
↓ 금리(국고채 3년)	0.995	(-0.011)	
↓ 환율(USD)	1107.80	(-4.40)	

효성중공업,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 첫 수주

중압 직류송배전시스템 국산화
나주 혁신산단 설치...7만가구 규모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용 송배전시스템인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을 국산화한 것에 이어 첫 수주에도 성공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국내기업 최초로 녹색에너지 연구원과 중압 직류송배전시스템인 30MW급 MVD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이 수주한 MVDC는 올해 말까지 나주혁신산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30MW급 MVDC는 6만

7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MVDC는 1.5~100kV의 중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DC)하는 시스템으로, 송전방식인 교류(AC)에 비해 장거리 송전 시 전력손실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송전 설비를 활용해 40% 많은 전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에 MVDC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데 이어 처음으로 국내에 적용하면서 앞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송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이번 수주는 독자 기술에 대한 집념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전력 산업부문의 토탈 에너지 솔루션 공

급자로서 차세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이번 MVDC 계약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LVDC, Low Voltage Direct Current)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LVDC는 저압 직류송배전시스템으로 산간지역의 전압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강원 산간에 40kW급 LVDC를 설치할 예정이다. LVDC 수주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효성중공업은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모든 범위의 전압 직류송배전시스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최초 기업이 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 010-3605-5000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기타 업종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PF 28억 가능, 지하 1층 공사 중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북구 신안동 KT전화국 건너편
대지 582㎡(구. 176평), 중심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기타 업종 가능)
지상10층, 72호실, 47㎡(구. 14평)
PF 40억 가능, CIP공사 완료
매 - 21억

북구 신안동 용봉초등학교 근처
대지 463㎡(구. 140평), 중심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예정
지상10층 가능, 63호실, 47㎡(구. 14평)
매 - 11억